

알려드립니다

국동지구 해양문화관광 도시재생대학 개강 알림

2021 국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리포트빌리지 : Re-Port Village」 해양문화관광 도시재생대학 개강

모집기간 2021. 11. 03 (수) 까지

운영기간 2021. 11. 03 (수) ~ 11. 25 (목)
매주 수 · 목 14:00 ~ 17:00 총 8회차

교육장소 국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2층)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월로 648 203호 / 110호)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찾아오시는 길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2층

운영시간
09시 ~ 18시

문의전화
061-659-2110

SNS



‘여수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검색
또는
QR코드 접속

되살림

Vol.30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
도시재생

발행일 2021.10.29

CONTENTS

2-4
여수골목문화축제
진남상가상인회
인터뷰

5-6
랜선탐방 [전주]
차없는 사람의 거리

7
주민제안공모사업
우리는, 지금.

8
국동지구 해양문화관광
도시재생대학 개강알림
찾아오시는 길



중앙동 원도심 내 사진



여수골목문화축제

야외공연

- 여수오카리나
양상블 예율
- 라임 하모니카

수공예체험

- 나무자동차 만들기
- 테라리움 유리 정원
- 쉬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플리마켓

- 진남공영주차장 주변
- 주 행사장 주변



수공예체험



전래놀이

여수 진남상가 상인회가 2021 여수시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진남로 · 충무로 상가 일대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한 골목문화축제입니다. 주민단체인 골목문화대장간과 함께 수공예 체험도 하고 진남상가 플리마켓과 공연을 즐기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개최일 6/26, 10/2, 10/23)



플리마켓



플리마켓



공연



전시

여수 진남상가상인회 인터뷰



(우) 진남상가상인회
임시상인회장
봄날공방 대표
골목문화대장간 대표
윤성희

(좌) 진남상가상인회 실장
임정남

여수 진남관 아래,
진남상가를 오랫동안 지켜오고 다양한 활동으로
상가를 변화시키고자 수없이 도전하는
여수 진남상가 상인회를 인터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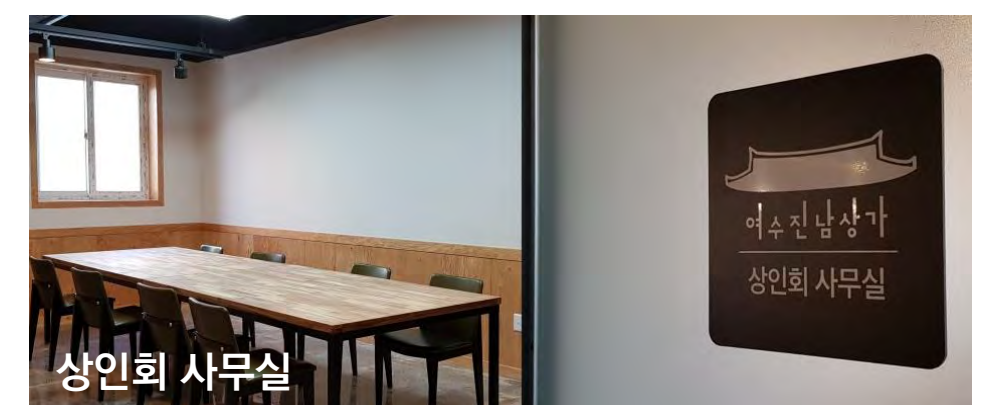
**Q. 그렇다면 여수진남상가상인회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상인회는 1983년에 교동오거리 주변 상가들로
처음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3월에 충무로
상가 변영회까지 합해서 정식으로 여수
진남상가 상인회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실장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임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그중
어느 누구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실장님이 저희 상가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하하)

**Q. 회장님께서 골목문화대장간으로 먼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문화대장간은 어떤 단체인가요?**

이전의 여수의 골목골목은 옛날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나이를 먹으니 점점 골목 주변의
빈집과 오래된 추억의 문구점 등이 없어지는 게
아쉽더라고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부수고 새로
짓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리모델링하고
재생해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전의 골목길의
추억들과 그 놀이터를 지금의 아이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더해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있는 흉물스러운 골목이
아닌 조그마한 활기가 생기고 가고 싶은 골목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고 골목골목에 문화를 입히고자 골목문화
대장간을 만들게 된 거죠. 저희 골목문화대장간은
공예협회 소속이자 공예 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7명이 이루어졌어요.



상인회 사무실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봄날공방

Q. 골목문화축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이전 중앙동 봄날공방 자리 건너편에 구) 제일은행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은 1942년 이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 은행 건물이에요. 이후 1958년에 제일은행이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했고 국가 등록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되며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부 안은 자물쇠로 잠겨있고 외부 울타리들도 보족하게 나와있어서 위험했었죠.

저희가 이 유휴공간인 은행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건물주를 만나 문 닫혀서 방치되어 있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 곳을 공간을 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이후 1년간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모아 은행을 빌려 작고 소소한 체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에서 추운 날 어묵도 팔고 공연은 물론 달고나 체험도 하고 한쪽에서 쌀 튀밥도 팔면서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동안 서러움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래도 제일 즐겁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봄날공방

Q. 이번 골목문화 축제를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4회차 축제를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네가 뭘데 차량 통제를 하나. 사람들과 현수막들이 가게 앞을 막고 있다' 하면서 민원을 넣고 해서 경찰들도 오고 그랬어요. 저희도 이 동네에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주민들과의 감정이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행사에서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와서 상가에 조금씩 활기를 띠니 상인들과 주민분들이 '이거 언제 또 하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쉽다.' 등 후기를 남겨 주시고 이방인이 남의 동네 와서 아등바등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며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덕분에 진남상가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골목문화대장관과 협력관계로 진행해 보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인분들께서 축제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본인 가게의 물건들을 경품으로 제공해 주시며 애정을 갖고 도와 주셨어요.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가 하는 이 축제가 시민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함께하는 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 우리의 재주와 골목 문화를 가지고
동네에 묻어서
동네 주민들과 나누고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



-전라북도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

Q. 인터뷰하시는 분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객리단길,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문화행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는 **나을 협동조합의 유상훈**입니다. 더불어 저는 '청연(청춘연구소, Youth Lab)'이라는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단길' 등의 거리문화행사를 동료들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전주의 거리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기획한 계기는요?

전주는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시 팽창이 진행되면서 원도심 내에는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공간을 되살리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해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존 도로 기능 중심의 가로공간의 '문화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차 없는 거리'라는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Q.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이루어진 과정이 궁금합니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충경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충경로는 전주의 허브 역할을 하는 요충지이며, 그로 인해 교통이 매우 활발한 곳이지만 혼잡하며, 유동인구는 비교적 적고, 상권의 지속적 성장에는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해결하고자 충경로의 좁은 인도를 넓은 도로까지 확장해 거리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이 기획을 통해 원도심 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지요.

마치 혼잡한 도심 속 센트럴파크가 주는 '쉼'의 이미지처럼, 저희도 도심 속의 공원 같은 편안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방문객들을 유도하고 혼잡한 도심 속 잠시 멈추어 머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충경로의 상권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차 없는 거리’에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저희 ‘차 없는 거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선 ‘시민참여형’ 행사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저희도 ‘인형극’, ‘도로 위 그림놀이터’, ‘도심 속 피크닉’, ‘수어 배우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는 ‘도로 위 스케치북’이 떠오릅니다. 도로 위를 도화지 삼아 분필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도로 위 멋진 트릭아트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기존 차도는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제약된 공간에 불과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즐겁게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참 감사하고, 또 부듯했던 기억이 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Q. 저희 여수 국동지구에서도 문화가로 사업을 준비 중인데 마을거리행사나 축제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 없는 거리’는 걷고 싶은 거리로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허나 이 기획으로 혹시 기존 주민들이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조율해 나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획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함께 하는 기획이 되어야 하며, 수평적 소통을 통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원과 다양한 고충을 분명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단이 그 거리에서의 구성원이 되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차 없는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려고요. (하하)

주민제안공모사업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는 주민 주도형 [여주시 도지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각 팀별마다 공모사업을 한참 추진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마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볼까요?



**국동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유희부지에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화단을 조성했어요.



**오동동
협동조합**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천연조미료를 만들었어요. 건강과 영양도 챙기고 음식과 정도 나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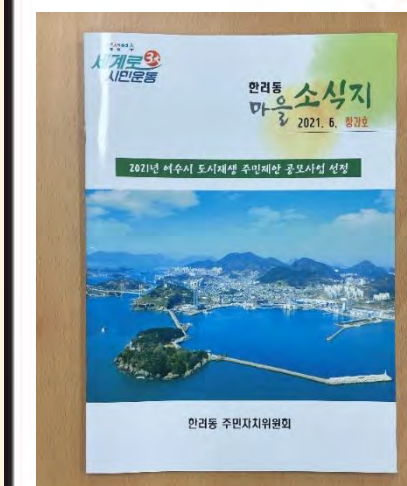
**여수진남
상가상인회**

진남상가에서 수공예 체험과 공연, 플리마켓, 전시까지 함께 즐기는 즐거운 골목문화축제를 열었어요.



**종화지구 새뜰마을
주민협의회**

마을공동이용시설 앞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한려동주민
자치위원회**

한려동의 뉴딜사업과 자생단체 활동 내용, 동정 소식, 공유 주방의 내용으로 마을 소식지를 제작하고 발행했어요.